

## 2023 헌책방 '집현전' 5기 레지던시 작가 모집

헌책방 '집현전'에서 2023년 5기 레지던시 참여 작가를 모집합니다.

'헌책방 레지던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레지던시입니다.  
또한 상업 공간 안에 공개된 채 작업하는 불편한 레지던시입니다.  
그래서 '헌책방 레지던시'는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레지던시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불편함과 독특한 조건을 이용하여 외부인과 함께 작업할 수도 있으며,  
어떤 조건이든 작가가 구상할 수 있는 자유로운 레지던시입니다.

헌책방 '집현전'은 인천 구도심인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중 인천의 첫 번째 헌책방으로 문을 연 역사가 있는 책방입니다.

그동안 집현전은 헌책방으로 헌책방 거리를 지켜오는데 함께 하여왔습니다. 또한 예술과 도서, 전시 공간으로, 시각장애인의 사진 활동을 기획하고 돕는 시각장애인 예술인 지원 사업,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돕는 레지던시 공간으로, 지역민을 위한 강의 및 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하여왔습니다.

그 중 작가 지원 레지던시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주관한 집현전이나 작업한 작가가 유기적으로 함께 하여 3개월 작업을 통하여 작품 완성을 맺고 전시와 책자 발간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되어 지역신문, 방송 등 매스컴의 인터뷰, 기사화 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5기 작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작가 모집

- 분야 : 문학, 시각예술
- 주제 : 자유주제
- 대상 : 문학, 시각예술 분야에서 3개월 동안 자기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 자.  
(나이, 지역, 국가 등 제한 없음)
- 인원 : 1인
- 레지던시 기간 : 5월 19일(금) ~ 8월 18일(금) (3개월)
- 접수기간 : 2023. 5. 3(수)~5. 9(화) 오후 6:00 (늦을 시 전화 연락 후 당일 내 접수 가능)
  
- 심사 :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심사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5월 11일, 오후 5:00 홈페이지 공지사항
- 2차 인터뷰 심사 : 5월 13일(토)  
(인터뷰 참여작가 교통비 지급(50,000원))  
- 발표 : 5월 14일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작가 지원 사항

- 숙소 제공
- 예술인 활동비 월 30만원 지급 (세금 8.8% 제한)
- 책자발간비 일부 지원(최대 70만원)
- 전시비용 일부 지원 (최대 60만원),
- 기타 지원(작품 디지털 전환, 작품집 디자인, 전시장 등)
- 숙소와 전시실 및 전 층을 협의 후 활용할 수 있음
- 집현전 도서 자유롭게 열람.

□ 작가 책임 사항

- 작가 부담 비용 : 시설 유지 및 기타 관리비 월5만원 (입주 시 15만원 일시 부담)
- 결과 전시와 결과 책자 발간
- 월 7일 이상 15일 이내 출석 (한 달 기간 :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메일(uram54@hanmail.net 제목에 [레지던스 지원] 표기)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전화를 통하여 사전 설명 시 다음 날 도착 인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창작활동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이상 세 가지는 지원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포트폴리오

□ 문의 및 참고

- 전화 : 070-4142-0897
- 이메일 : uram54@hanmail.net (제목에 [레지던스 문의] 표기)
- 홈페이지 : <http://uram54.com> (공지사항)

□ 집현전 레지던스 공간 현황

-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3-1 (집현전)
- 1층 (10평) : 책방, 화장실(샤워공간), 창고
  - 2층 (10평) : 책방, 주방 공간, 레지던스 작가 Room
  - 3층 ( 8평) : (다락방) 전시공간, 강의실, 회의실
- 
- 모든 공간에 에어컨 시설
  - 방1(침대, 책상) (이부자리는 간이용: 본인이 준비 가능함)
  - 주방(인덕션, 냉장고, 전자레인지, 기타 식기)
  - 화장실(샤워실 겸용-온수 가능 : 불편함)

현책방에서 과연 예술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공간(주최자)은 잘 모르겠습니다.

- 손님이 드나들어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 시설이 열악하여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 작업 과정을 일반인들이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 벌써 3년째 시도하고 있지만 시설과 지원 방법 등 아직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 그럼에도 공간(주최자)는 개인이 진행하는 작은 헌책방에서의 레지던시 시도는 어느 곳에서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기엔 작가에게나 공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 이 작업은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사업을 시도하려 할 때 기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시도합니다.
- 
- 책방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헌책방 건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특이함 등을 이용하고 작가의 독특함이 만난다면 하나의 사건은 만들어질 것이라 여기며 열정이 넘치는 작가와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최·후원

- 주최 : Art & Book Space '집현전', 사진공간 배다리
-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첨부파일

모집공고문, 지원신청서, 집현전 소개 자료